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대학 구조조정,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사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교육부가 하는 식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더구나 지금대로라면 우선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학부모 또한 '호갱'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다.

첫째, 정부는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이 높은 대학에는 혜택을 주고 낮은 대학은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폭적인 정원 감축도 요구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부실대학을 없애고 일류대학을 키우겠다는 학부모들로서야 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서 차별 대우하게 되면, 대개 전체 4분의 1 정도로 추산되는 1~2등급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의 학생들은 학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3등급 이하에 분류되면 정원을 30%에서 50%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대학에는 재정 지원도 끊어버리고,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도 주지 않으며 심지어 등록금 대출조차 제한받는다. 당연히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은 물론 폐교나 폐교라도 되면 엄청난 피해가 볼 뻔하다. 즉 이 나라의 대학생 절대 다수는 앞으로 정상적인 고등교육은커녕

혼란만 겪다가 대학을 나올 것이다.

둘째,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대학의 질을 높이고 선진화하겠다고 한다. 대학을 선진화하려면 국공립이 중심을 이루는 선진국의 고등교육체제에 근접한 방식으로 대학을 바꾸어나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대학은 사람이 85%나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이고 그렇다 보니 등록금 부담은 세계 최고면서도 사학들의 부실한 재정과 즉발경영으로 인한 고질적인 폐해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수해왔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구조조정으로 교육과 연구환경이 나빠질 교수나 학생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이 부실 경영으로 퇴출이 예상되는 특정 사학재단에는 특혜를 잔뜩 안겨주는 구조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교육부가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학재단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셋째,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필요와 대학이 공급하는 인재 사이의 '미스매치'를 말하면서 취업 중심으로 대학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자 각 대학들은 앞다투어 공학계열 중심의 학과 통합 등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학부모의 귀에는 대학이 취업을 중시한다니

슬깃할 수도 있겠다. 물론 취업은 중요하고 대학도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면 대학끼리 아무리 경쟁해도 전체 취업률이 높아질 리 없다. 더구나 미스매치니 하는 것도 사실과 어긋난다. 한국 대학생 가운데 공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무려 네 배다.

현재 이공계 출신 취업률은 인문계보다는 높지만 6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정원을 더 늘리면 취업률은 이보다 떨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에 전가한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대학진학률이 20%를 넘지 못했던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어 미래 지식중심사회에서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도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문제의 사학재단들을 퇴출시키고 대학교육을 선진국처럼 공영화할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여기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그릇된 구조조정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고액등록금에 시달리면서도 자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도 지키지 못하는 딱한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社說

저금리 시대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낮춰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종 대출금리가 일제히 내려갔는데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지부진하다. 때문에 올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업인에게 꽃 피는 봄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1.75%까지 낮추는 바 있다. 하지만 24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여전히 3%가 넘는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농기계 구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6개 자种的 금리를 인하한 결과이다. 지난해는 연 3% 이상 정책자금의 비율이 47.3%나 됐다.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은 지난해 기준 대부분 연 3%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심지어 5%대의 자금까지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추가 인화가 필요하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금리 인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농업인은 물론 최근 전국 10개 시·도가 한·중 FTA 체결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농식품부에서도 정책금리 인하여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수부는 현재 3%인 어선 현대화 자금 금리를 1~2%까지 낮추기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니 희망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당 평균 부채는 2736만 원에 이른다. 올해도 쌀시장 전면 개방에 이어 한·중 FTA가 발효되는 등 농어촌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하루속히 인하해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호남선 KTX 개통, 증편 방안 강구부터

다음달 2일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KTX)는 노선과 일일 운행 편수 결정 과정에서 논란의 연속이었다. 수도권역 경우설이 나오면서 이를 찬성하는 대진과 반대하는 광주·전남, 전북, 충북 사이에 지역 갈등 양상까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역을 경우하서 6회만 증편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평균 배차 간격이 상행선 45분, 하행선 43분으로 벌어진 것이다. 코레일 측은 경우 고속철과 비교해 호남선 승객이 적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소요 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빨라지고, 배차 간격도 줄어든다면 KTX를 타려는 승객들이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KTX 서울 용산~광주 송정 구간 요금과 운행 시간을 놓고서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호남선의 구간별 요금이 경부선보다 4300원이나 비싼데다 운행 시간도 1시간 33분에서 평균 17분이 늘어난 1시간 50분이 걸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일 운행 편수 48편(주말 기준) 중 1시간 33분이 걸리는 열차는 단 한 편에 불과하다니 사실상 지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고속철은 효율과 효율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호남선 개통과 함께 운행 편수를 늘리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또 요금을 재조정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시켜 지역민의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지역 차별이자 호남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춘 특·특



김진혁
초당대 조리과학부 3학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수능과 입시에 매달려 공부만 해야 했다.

교육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이미 만들어진 지식은 그 자체가 결코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실험과 경험을 통해 기존 지식을 비판하고 주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작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힘을 지니, 자율적인 인간이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이라고 어느 책에선가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번쯤 생각해 본다.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인 '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나의 인생길이지만, 모두가 바라는 대로 맞춰진 길을 걸어야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 살아 온 것 같다. 이미 만들어진 권위와 절대적 가치의 혼란 속에서 생각을 지우고, 현실을 재빨리 받아들여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대학, 목표,

직업인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칭찬의 박수가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절,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길에 서 있기보다는 스스로 개척할 길을 만들기 위한 포석을 그때그때 준비했더라면 나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안타깝게도 없었을 것 같지만 말이다. 왜일까? 어러서부터 등수를 매기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험지,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현재 우리 대학생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흔히 대학생은 스스로 알아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받은 교육을 생각해보면 완전한 억지라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해결하는 주체적인 삶을 대학 입학 전까지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꿈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른 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삶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사회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못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무한경쟁을 강요당만 한다. 그 무한경쟁은 대학 사회를 떠나 직장을 가도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인생은 반복적으로 무한경쟁을 하다가 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일 것 같다.

나는 대학생으로 살면서 남들이 정해놓은 길, 남들이 원하는 길,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남들이 정해놓은 길로만 가지 않고 내 삶에 애착을 갖고 나의 삶을 설계하고, 꿈꿔 왔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이 가지고 싶은 영원한 로망이며, 숙제가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 대학생 파이팅!

기고

양치기 소년과 만우절



김광석
광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신고였다. 그 때 필자는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장으로써 특공대원들을 인솔하는 위치에 있었다. ○○교회 지하에서부터 4층 옥상까지 폭발물 탐지견들을 투입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교차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한 긴장감 속에 수행했다. 하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안도감과 아울러 한편으로 허위신고자의 소행이라는 말을 듣고 허탈감마저 느꼈다. 나중에 경찰에서 신고자를 추적하였고,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청 남부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연한 일이었다.

어릴 적 들었던 양치기 소년은 이슬우 화중 하나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자 동네 어른들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들고 달려왔지만 헛수고를 했다. 이후에도 소년이 두세 번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정작 어른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는 바람에 마을의 모든 양들이 늑대에 의해 무참히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여러 번 거짓말을 반복

해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다. 결국 평소에도 정직해야만 필요한 때 타인의 신뢰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긴급전화 112'신고는 항상 신고내용을 믿고 그에 따른 조치가 즉각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14년 광주경찰청 112신고건수는 총 57만여 건이며 이중 허위신고 건수는 89건, 허위신고 처벌건수는 79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인한 결과다. 관계당국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형사책임을 지어야 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면 징역심판(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회부된다. 또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며, 민사

책임으로는 경찰청 등 남부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 배상 청구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월 1일 만우절은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벼운 장난,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는 풍습이 있는 것이다. 지난 신문은 인터넷으로 스크랩해 보니 40여 년 전 만우절에 허위신고가 112에 몰렸던 기사가 있었으며 특히 범죄신고 중 80%가 허위신고, 화재신고는 100%가 허위신고였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또 20년 전 신문기사는 112 신고 86만건 중 21%인 18만여 건이 허위신고였다고 지금보다 과거에 허위신고가 더 많았던 모양이다.

만우절! 가족끼리, 동료끼리, 연인끼리 적절하고 감각적인 가벼운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여유를 가지며 긴장감을 덜거나 한발 더 가까이 질수 있는 계기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다. 그러나 112허위신고의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다. 만우절을 기회삼은 허위신고만은 안될 말씀이다. 다가오는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U대회와 성공 개회를 기원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지난 21일(현지 시간) 오후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다. 해변 앞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몽생 미셸 수도원(Mont Saint-Michel)이 밀물 때 바닷물로 둘러싸이는 희귀한 현상을 보기 위함이었다. 평소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던 수도원은 이날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최대 14.15m 높아지며 고도(孤島)처럼 변했다.

이날 조위(潮位) 상승은 태원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슈퍼 문'(Super Moon)의 영향 탓이었다.

이렇듯 달의 인력은 하루 2차례씩 밀물과 썰물 현상을 빚으며 동서고금의 문학작품 창작에 많은 영감을 주고 여성들의 월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연과학의 발달도 가속시켰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동설'(天動說)을 주장했지만 지구 모양이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태양-지구-달이 일직선 상에 놓여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월식(月蝕)을 관측하다가 달에 드리운 지구 그림자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4월 4일 개기월식 천문현상이 일어난다고 예보했다. 오후 7시 15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 8시 54분부터 9시 6분까지(개기식 최대 9시) 달의 전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지속된 후 10시 45분에 완료된다고 한다.

개기 월식때 달은 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나마 붉게 보인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중 푸른 부분은 대기 속에 흡수되고, 붉은 부분은 굴절돼 달표면에는 도달하기 때문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짬을 내 태양과 지구, 달이 빚어내는 우주의 신비로움을 감상해보자. 만약 지구 주위에 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지식과 감성은 지금보다 훨씬 초라하고 삭막하리라.

1969년 7월 16일(미국시간) 아폴로 11호 사령관(콜롬비아호)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는 동료 날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해 활동하는 동안 혼자서 달 궤도를 14번 돌며 이런 메모를 남겼다.

"우리가 지구에 산다는 것은 행운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치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조사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